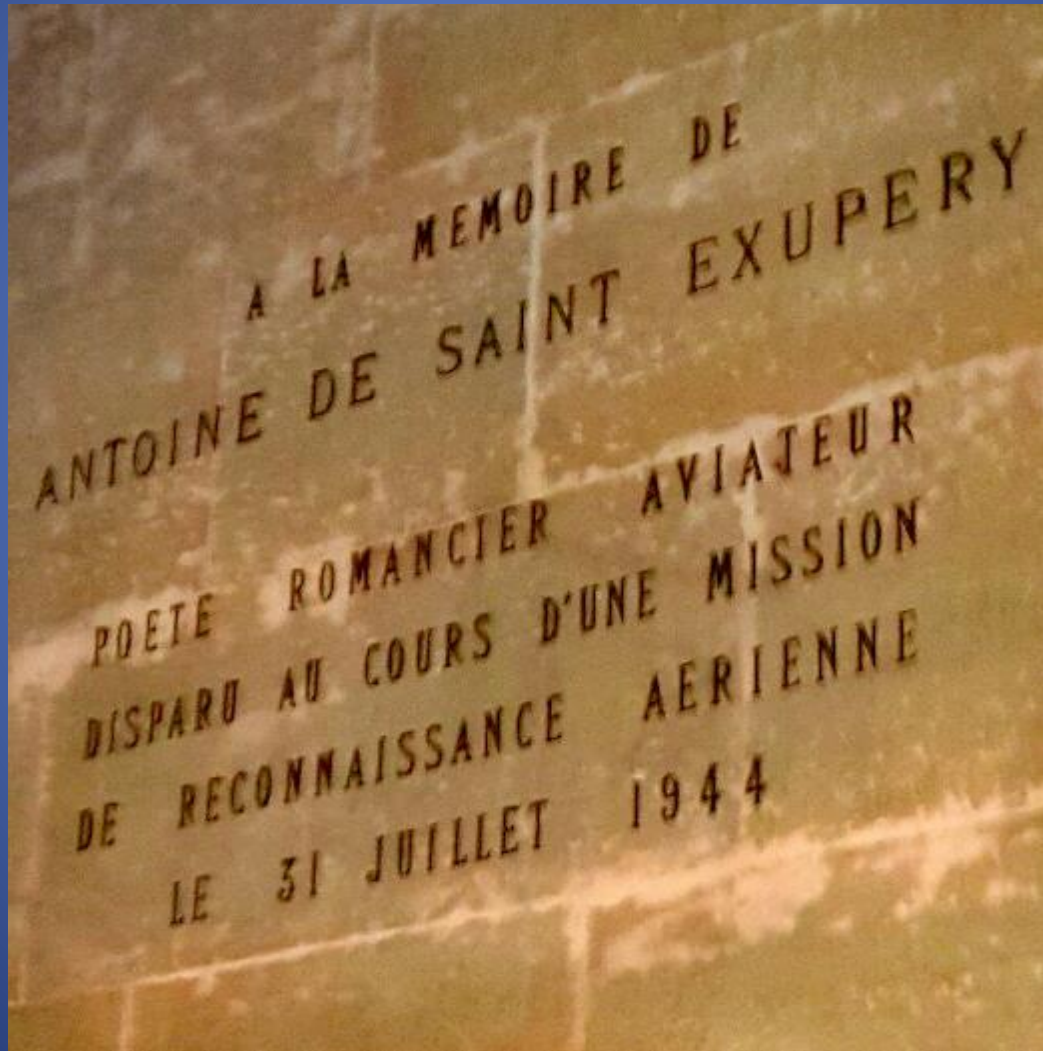


어린 왕자의 평화 의식



프랑스, 비행사-작가에게 경의를 표하다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를
기리며

시인 소설가 비행사
1944년7월31일

공중 정찰 임무 수행 중 실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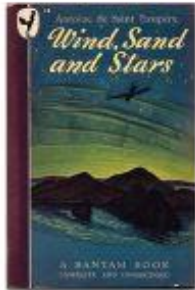
생텍쥐페리 죽음에 헌정한 곡 Saint-Ex



Widespread Panic, 『Dirty Side Down』(2010), ATO Records.

어린 왕자 찬가

〈어린왕자〉는 20세기 최고의 인문서적, 모든 고독을 달래주고, 세상의 장엄한 신비를 이해하게끔 인도하는 위대한 시인의 메시지이다.
- 하이데거, 〈어린왕자 서문〉



사르트르, 실존철학의 기원을 이룬 소설
경험 상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 〈어린왕자〉 전편, 〈바람과 모래와 별들〉

이 책은 삶의 의미가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 책임적인 **사랑**에 있음을 깨우쳐 준다. 작은 풀까지 정성껏 돌보는, 그리고 자연과 생명을 친구로 삼는 사랑만이 순수하고 영원하며 풍요한 삶의 샘이 된다는 진리를 저자는 갈피마다 웅변한다. 만약 내가 〈어린이 신학〉을 쓰기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아마도 〈어린 왕자의 신학〉을 썼을 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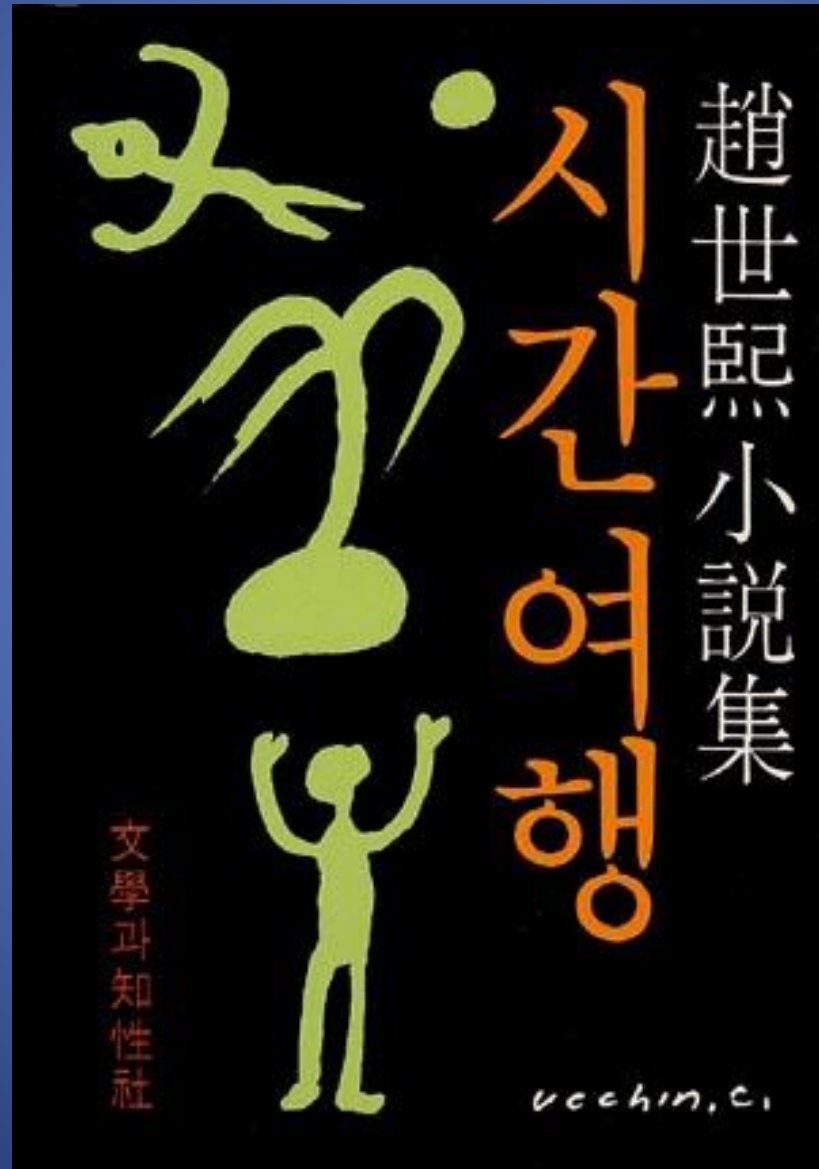
- 신학자 이신건의 감상

〈어린 왕자〉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게 소개해 준 **벗**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벗**이다. 너를 대할 때마다 거듭거듭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벗은 나에게 하나의 **운명 같은 것을 만나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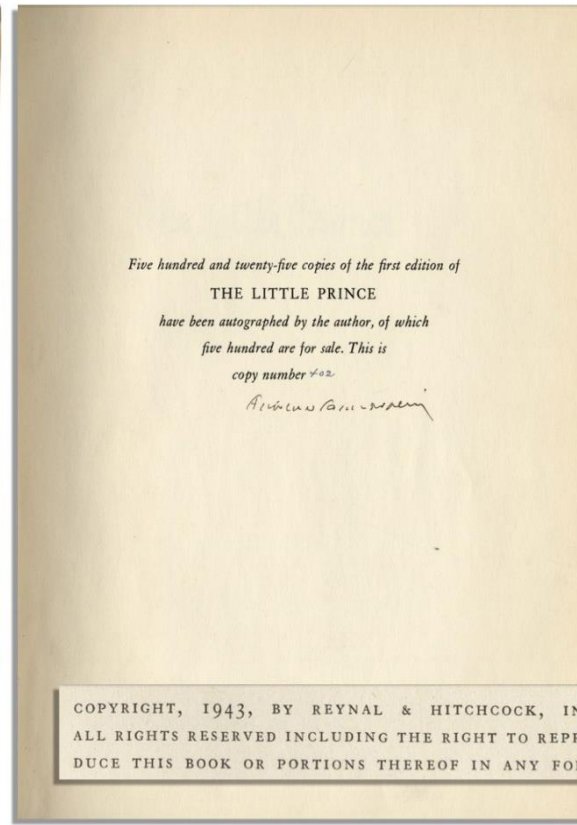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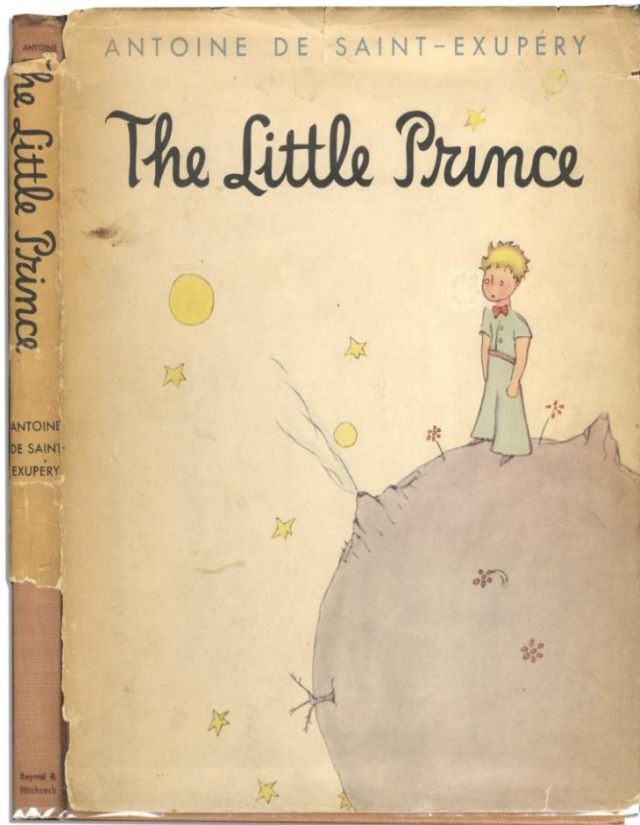
- 법정스님의 감사



한국을 찾은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뉴욕 출생



Antoine de Saint-Exupéry

어린 왕자 탄생의 역사적 배경

- 1939년9월1일 독일 폴란드 침공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영국 프랑스 대독 선언포고
- 8개월간 전투 없이 독일과 국경에서 대치하는 이상한 전쟁 지속, 생텍스 적진 정찰, 독일 전차군단 집결 상황 보고 목살,생텍스 소속 부대 2/33 알제리 대피.
- 1940, 6월 파리 함락, 페탱 독일에 항복, 비시 정부 수립, 42년 소멸. 종전 후 페탱 종신형.
- 1940, 12월 미국 망명, 뉴욕에서 미국 참전 홍보 전력
- 1943년 뉴욕에서 출간, 비시에서 해적판 출간.
1944년 7월 21일 생텍스 펴기 전서 8월 25일

생텍쥐페리(1920)

레옹 베르트(1914)



어린 왕자, 평화주의 우정의 산물

“이 어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심지어 아동 도서마저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지금 프랑스에서 굶주린 채 추위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어른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정치권 이방인 생텍스

당시 드골은 런던에서 '자유 프랑스'라는 또 다른 정부를 세워 프랑스인들의 대독 투쟁을 독려하고 있었다. 생텍스는 이러한 드골의 망명 정부 노선을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 분열을 야기하는 전술로 간파하였다. 더욱이 생텍스가 드골의 숨은 정치적 야욕을 경고하자 드골은 그를 친독주의자로 호도하기까지 한다. 그는 조국을 떠나 기를 주저했으나 미국의 참전을 호소하기 위해 결국 미국 망명을 선택한다. 스페인에서 미국행을 시도한 생텍스는 스페인 내전 취재 당시 공화파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리스본에 도착하여 겨우 미국행 배에 오른다. 친구 베르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머물던 생텍스는 조국에서 추위와 기아에 시달리며 평화를 고대하던 친구를 위안하려 붓과 펜을 들었다.

평화의 조건, 진정한 연대감

생텍스는 평화를 정치 논리로 풀려하지 않는다. 나아가 논리로 설명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인생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정치가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거창한 말의 진정성과 논리성을 따지려 들지도 않는다. 그들의 말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말이 자신의 요구에 상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이다. 평화를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동료들과의 진정한 연대감이기 때문이다.

연대를 이루는 나 자신이 사회 자체이며 하나의 국가이다. 사회와 국가가 나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역할일지라도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는 평화의 선물로서 보편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평화는 논리적 설득의 산물이 아니라 차라리 논리를 단순명료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이데올로기의 효율성이 증명된다 해도 이데올로기들끼리는 여전히 서로 대립할 것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위험 요소로서의 바오밥나무의 자양분인 위선과의 싸움 아닐까.

전쟁의 공포부터 인식시키자

이렇게 탄생한 『어린 왕자』는—훌륭한 예술작품이 대부분 그러하듯—진실한 평화주의자의 정성으로 탄생한 산물이다. 레옹 베르트에게 『어린 왕자』를 헌정한 생텍스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조건 그들을 야만인 취급한 것도 아냐고 느꼈다.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평화주의를 간직하였다. 전쟁을 불사하는 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텍스는 그들을 야만인 취급을 해서 안 되며,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를 이해하고 노력하려 했다.

설득은 금물

전쟁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쟁의 공포를 설득시키려면, 그를 야만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평화의 선물

연대를 이루는 나 자신이 사회 자체이며 하나의 국가이다. 사회와 국가가 나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역할일지라도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는 평화의 선물로서 보편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평화는 논리적 설득의 산물이 아니라 차라리 논리를 단순명료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이데올로기의 효율성이 증명된다 해도 이데올로기들끼리는 여전히 서로 대립할 것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위험 요소로서의 바오밥나무의 자양분인 위선과의 싸움 아닐까.

나는 관계의 매듭

너는 관계의 매듭이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의 관계에 의존하여 존재하고, 너의 관계
는 너에 의존하여 존재하지. 사원이 돌 하나하나
로 존재하듯. 네가 돌 하나를 빼내면 사원은 붕괴
하고 말지. 생텍스, 『성채(Citadelle)』 CLXXV,
『Œuvres complètes』 II, 갈리마르, 1999, p. 720.

-

길들임과 평화

1. 전투비행사는 왜 <어린 왕자>를 썼나?
2. 어린 왕자는 왜 양을 원했나?
3. 왜 뱀과 여우와 친구 맺었을까?
4. 친구의 조건은 무엇인가?
5. 어린 왕자가 남기고 간 선물은 무엇인가?
6. 어린 왕자가 전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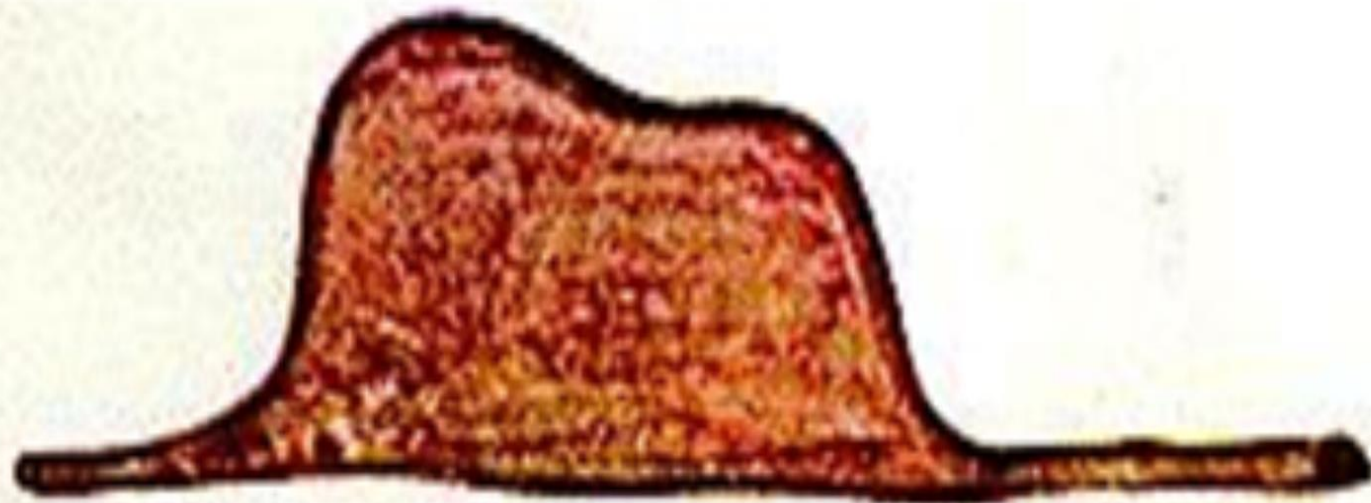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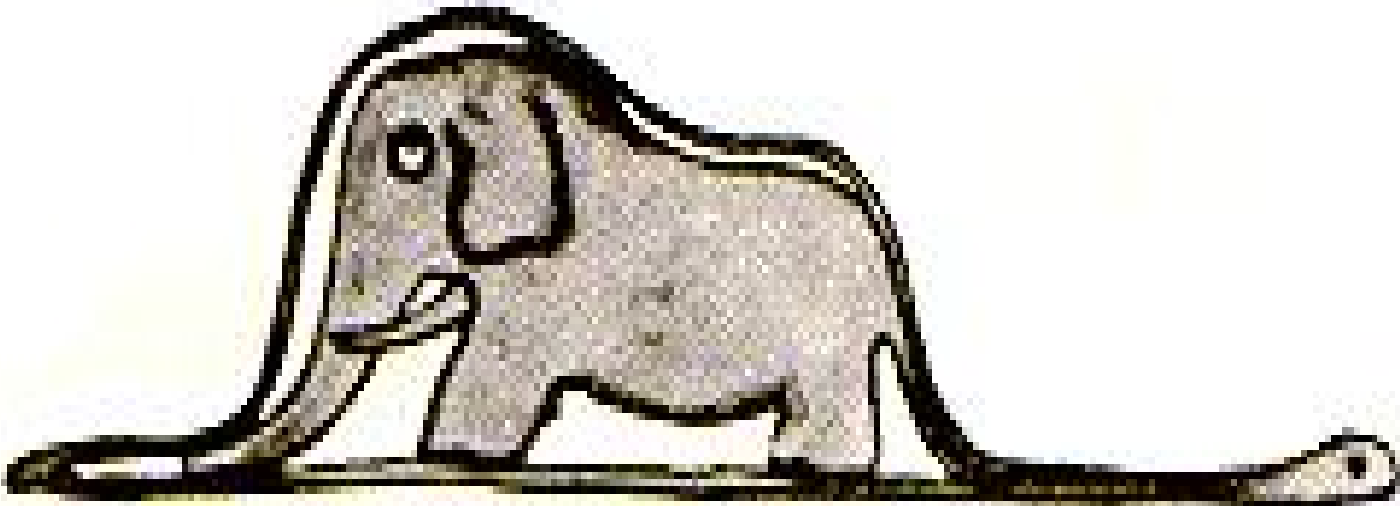
우리 영혼은 별에서 왔으며, 지구에서 살다 죽으면 별로 돌아간다

- 소행성 B612를 떠나다.
- 여섯 별 유람(왕, 허풍쟁이, 술꾼, 사업가, 지리학자, 세일즈맨, 전철수, 약장수, 도덕군자, 비행사)
- 의미 있는 직업 발견(가로등지기)
- 인간과 버섯
- 지구 사막에 떨어지다
- 여우 만나 길들다
- 뱀 만나 길들다
- 비행사 만나 길들이다
- 스스로 뱀에 물리다
- 소행성 B612 돌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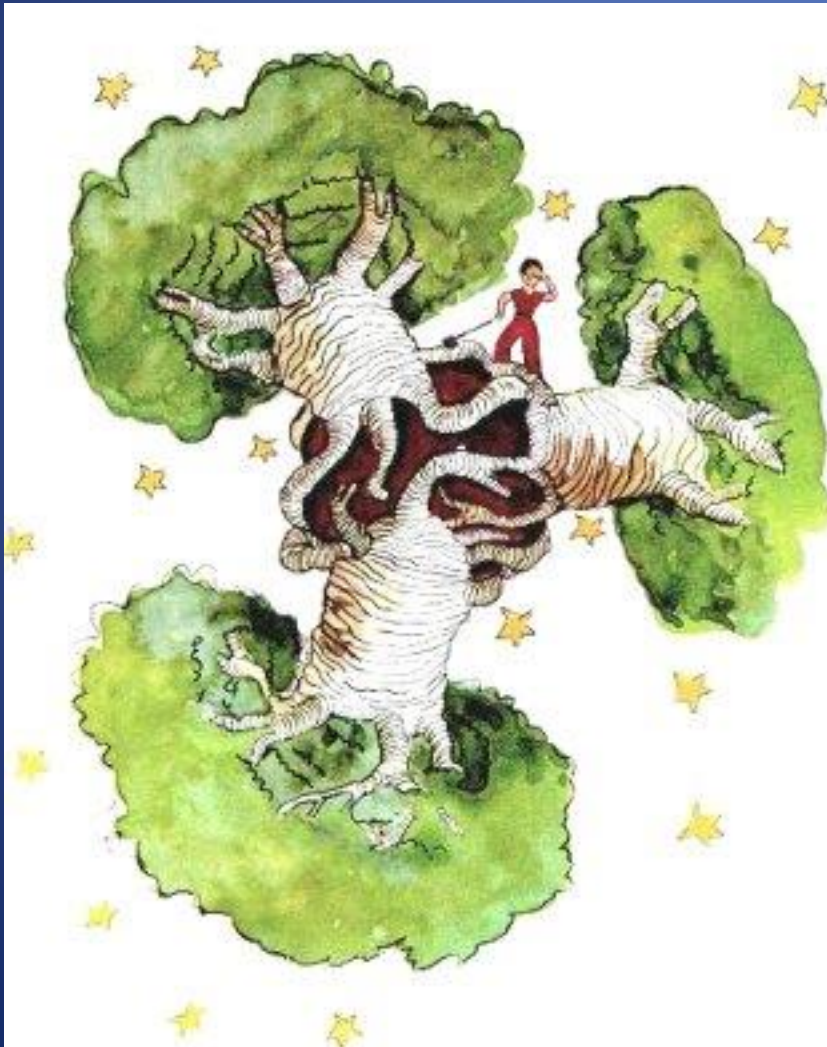
왜 첫 그림은 보아뱀인가?



누가 악인가?



양 한 마리 그려줘!



L'histoire et le petit prince

Des dessins pour le petit prince

L'histoire et le petit prince

1. Quelque chose d'était cassé dans mon récipient... Et comme j'étais assis dans mon avion, j'envisageais de le réparer...

Le petit prince, je me suis donc endormi sur le sable, les deux côtés de toute terre habitée...

Mais vous imaginez ma surprise, au lever du jour, quand une croix de petits voeux m'a réveillé.

Cette petite voix disait :

« Est-ce que tu dessines moi un mouton ? »

— Non !

— Dessine-moi un mouton... »

J'ai sauté sur mes pieds comme si j'avais été frappé par la foudre. J'ai bien froissé mes yeux. J'ai bien regardé. Et j'ai vu un petit bonhomme tout à fait extraordinaire qui me regardait gravement.

Je lui dis que je ne savais pas dessiner.

« Ça ne fait rien. Dessine-moi un mouton. »

Alors j'ai dessiné.

Il regarda attentivement, puis :

« Non ! Celui-là est déjà très malade. Fais-en un autre. »

Je répliquai :

« Mon ami sourit gentiment, avec indulgence :

« Tu vois bien... ce n'est pas un mouton, c'est un bébé ! Il a des cornes... »

Je refais donc encore mon dessin.

Mais il fut refusé comme les précédents.

« Celui-là est trop étouffé. Je veux un mouton qui vive longtemps. »

Alors, fâché de patience... je giffarde ce dessin-ci.



<어린 왕자>의 토대, 평화주의

20세기 필사본 전문가 올리비에 드베르, 뱀은 평화, 코끼리는 전쟁의 상징으로 정의함.

“작가가 찾고 있던 여섯 글자는 문맥으로 보아 ‘guerre’(전쟁)임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은 이 작품에서 생텍쥐페리의 반전 사상을 직접 언급한 유일한 부분이며, <어린 왕자>는 ‘평화를 위한 책(Livre pour la Paix)’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아뱀 화폐



50 Cinquante Francs

T 045566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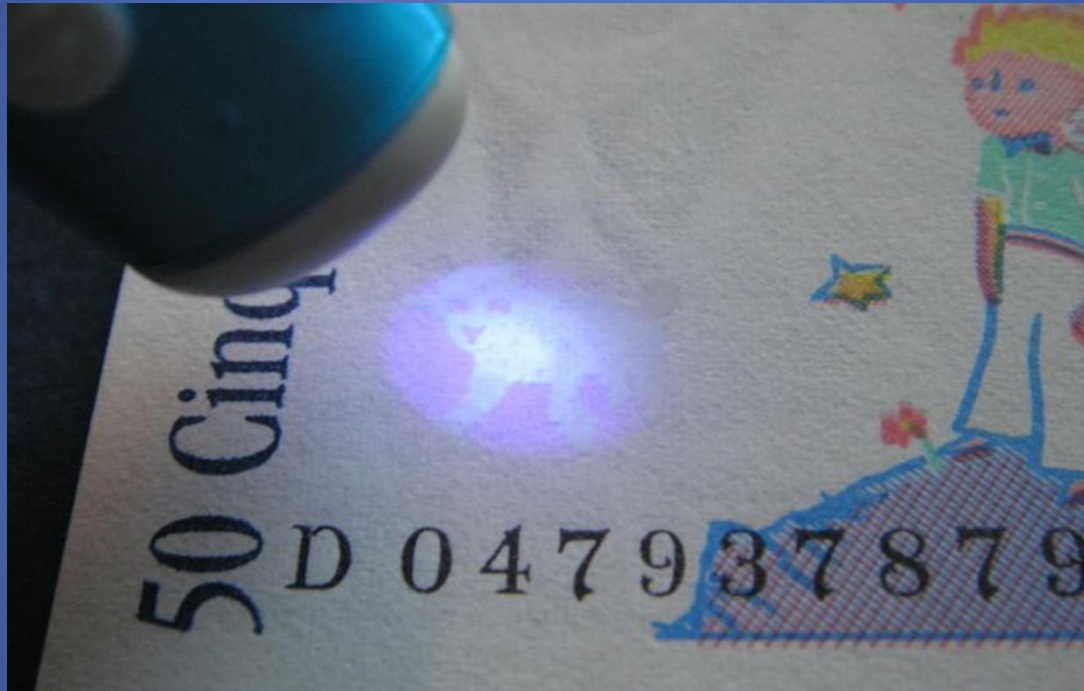


Antoine de Saint-Exupéry
1900-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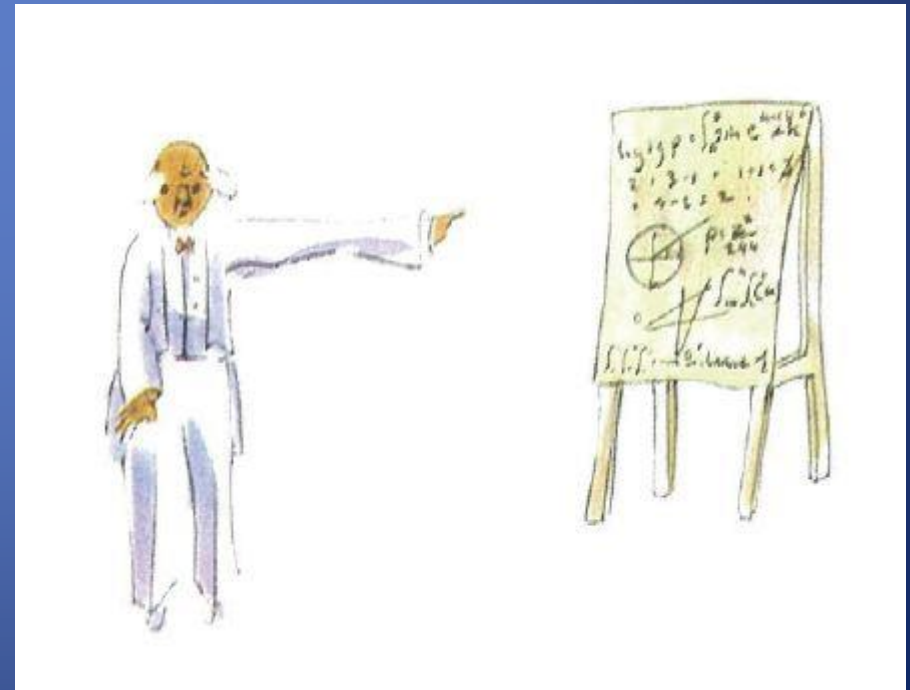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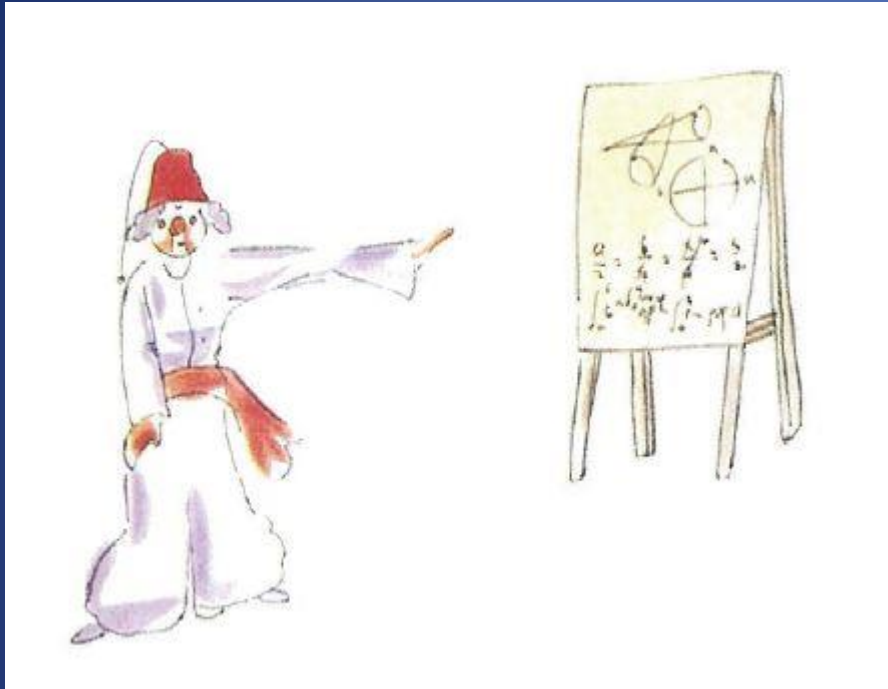
Banque de France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쓰는 법을 배워서 안 됩니다. 보는 법을 배워야지요. 쓴다는 직업은 결과적으로 생기는 어떤 것이지요.

저절로 보이는 것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 아니다



어린 왕자의 화두

본질, 마음, 시간, 길들임, 책임

여우: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단순하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본질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여우: "네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네 꽃에 바친 시간이란다."

여우: "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언제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달힌 평화의 위험성

빛으로 나가는 모든 출구를
시멘트로 꽁꽁 막아 만든 평화

길들임, 서로 필요한 관계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
져. 너는 네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년이
되고 나는 네게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
야.....”

세계를 길들이는 어린 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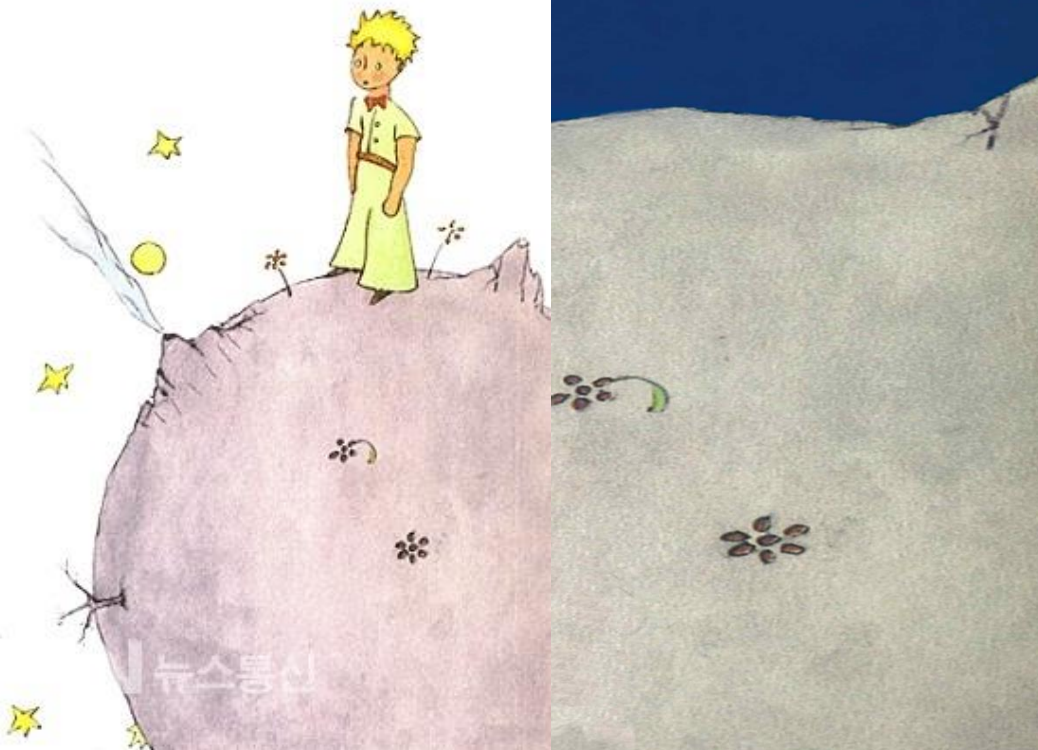
أنطوان دو سانت إكزوبيري

الأمير الصغير

مع رسوم المؤلف


ÉDITIONS AÏNI BENNAÏ

뉴스통신



어린 왕자 평화전도사

300개 언어로 읽히게 된 『어린 왕자』가 자기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평화정신으로 세계 시민을 하나로 맺어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왕자 :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이 있어서.....”

비행사: “그럼, 사막은 아름다워.”

왕자 :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우주 정거장에서 공모한 어린 왕자 이야기







전쟁과 증오 < 자기중심주의

오늘날 종족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약간의 피를 희생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쟁에 속아 왔다. 증오는 삶의 행로를 고양시키는데 백해무익한 것이다.

일시적 평화의 위험성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평화 속에 살아간다.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신에게 간청하였다고 믿어 버리고는 이제 하루 동안 평화를 얻는 것이다.

전쟁의 공포 알리는 평화주의

전쟁 당사자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그들을 야만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평화주의를 지켰다.

동포애로 조장하는 평화

독일인으로서 베토벤과 국적이 같음을 내세워 독일인들을 도취시킬 수도 있다. 사람들은 군가를 부르며 전우들 틈에서 빵을 씹어 먹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얻어먹은 빵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대치 상황

전쟁으로 살려내겠다고 우기는 그것을 전쟁 스스로가 파괴하는 오늘의 현실. 분단 현실에서 전쟁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해야 하는가?

사랑의 정의

- 우리라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공동의 목적에 의해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숨 쉬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상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재회의 공간으로 서로 동일한 봉우리로 이어지는 동일한 로프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동료들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편을 안한 20세기에 들어서도 사막에서 우리의 마지막 먹거리 거리를 함께 나누면서 그토록 충만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이 점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의 예측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우리 가운데 사하라 사막에서 구조되는 그 큰 희열을 누린 사람에게는 그 이외의 모든 희열이 하찮게 보였다.

평화,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린 왕자와 비행사의 대화 모두는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아에 갇힌 자신을 끄집어 내려는 내적 대화이다.

- 왕무(Wang Mu)

나는 관계의 매듭

너는 관계의 매듭이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의 관계에 의존하여 존재하고, 너의 관계는 너에 의존하여 존재하지. 너는 하나의 사원이고, 하나의 영토이자, 하나의 제국이라네. 이들이 너로 인해 존재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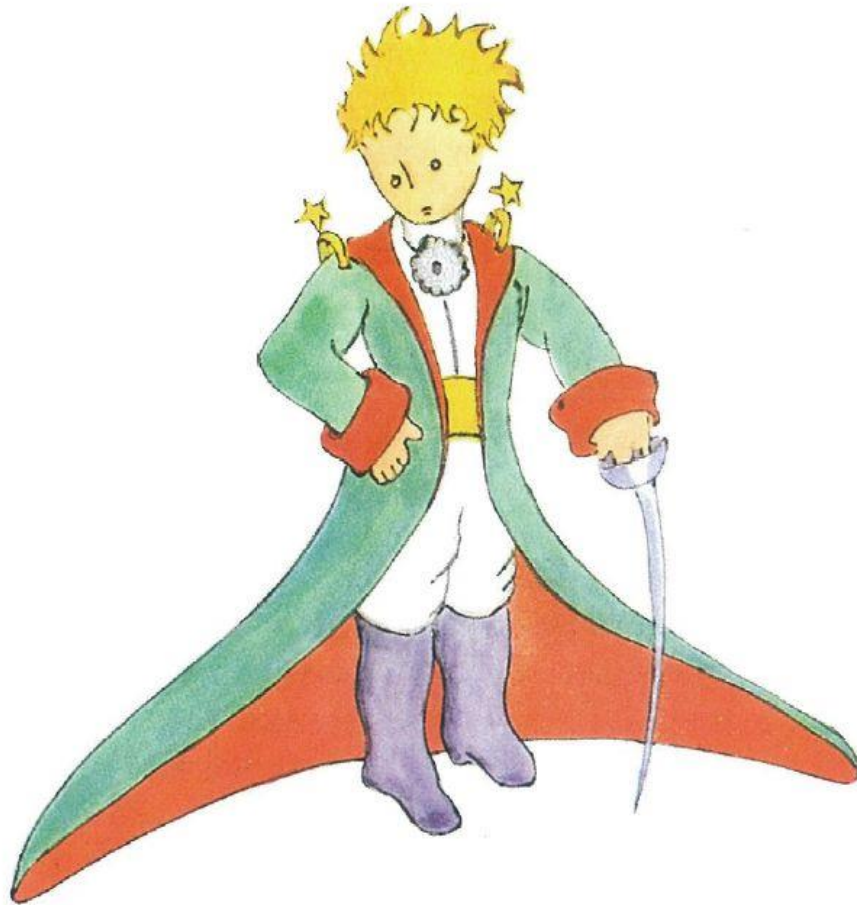
— 생텍쥐페리, 『성채(Citadelle)』

어린 왕자의 선물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어느 별에 살고 있어서,
그 어느 별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셈이지!”



교사의 현실적 고충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려낸 그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잘된 초상화이다.

새로운 그림이라는 것이 눈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현실에서, 대중에게 화가를 고르게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역설이란 말인가. 모든 요인을 거부할 것.

생텍쥐페리, 『수첩(Carnets)』

평화의 방향



경험 상 우리는 사랑
한다는 것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
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

내면의 평화

절대군주 : 불필요한 탐심과 겨루는 마음

허영쟁이 : 동료를 엑스트라로 보는 마음 떨치기

알콜중독 : 책임 회피 태도에서 벗어나기

사업가 : 소유와 존재의 균형 찾기

가로등지기 : 수동적 성실함에서 오는 노이로제, 알려진 불행보다 모르는 행운 택하는 변화

지리학자 : 무용한 지식욕, 감정 배제된 지식 경고

아이들의 평화롭게 하는 동경심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 생텍쥐페리

어린이의 관심

“그림은 집어치우고 대신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 같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충고하더군요.”

아이가 관심 가지는 것은 본질 자체인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

어른 잣대에 자기 가치를 적응시켜가는 아이들.

어린 왕자의 평화 여정

나를 위한 나
내가 안다고 여기는 나
내가 원하는 나

인문
여행

남을 위한 나
내가 모르는 나
내가 원치 않는 나

내가 되어드는 나

내가 되지 않으려는 나

자기중심주의 벗어나는 감수성이 공존의 길

생텍쥐페리 삼의 태도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외줄 타는 광대의 긴장감

회복기 환자의 간절함

Merci beaucoup!



어린 왕자 인문학당
www.songtaihyo.com